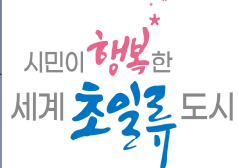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 인천
	배포일자	2023년 9월 8일(금) 총 2매	
담당 부서	건강증진과	담당자	• 정신건강팀장 이은실 ☎440-1581 • 담당자 유한나 ☎440-1582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자살예방사업 평가에서 전국 시도 1위로 선정
 - 3년 연속 자살예방 분야 평가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-
 - 생명사랑 택시·약국·병원·간호사 등 생명지킴이 자살예방 활동 인정받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‘2022년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’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9월 8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‘자살예방의 날’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
이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자살예방 정책과 생명존중 확산의 수행역량을 평가하는 사업으로, 매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3개 우수지자체와 14개 우수기초지자체 등에 표창을 수여한다.

인천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자살예방 분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, 올해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우수지자체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.

특히 지난 2021년 ‘마음에 온(穩), 생명을 온(on) 프로젝트(2021년 ~

2025년)’ 중장기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며, 지자체 내 관계부처(30개)와 자살예방 협업과제(4대 전략 18개 정책과제 131개 세부사업)를 추진해, 타 지자체에 모범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.

이 밖에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명사랑택시, 생명사랑약국, 생명사랑병원, 생명사랑학원, 생명사랑간호사, 생명사랑숙박업소 등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및 도움으로 연결하는 분야별 생명지킴이 등 인천시의 특수성에 기반한 사업계획과 자살예방 전담 인력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노력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 정책환경 조성에 우수함을 인정받았다.

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“앞으로도 자살예방 환경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등 생명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” 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※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·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☎1393, 정신건강 상담전화 ☎1577-0199, 희망의 전화 ☎129, 생명의 전화 ☎1588-9191, 청소년 전화 ☎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누리집(ispc.or.kr)을 통해 마음건강 자가진단 및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